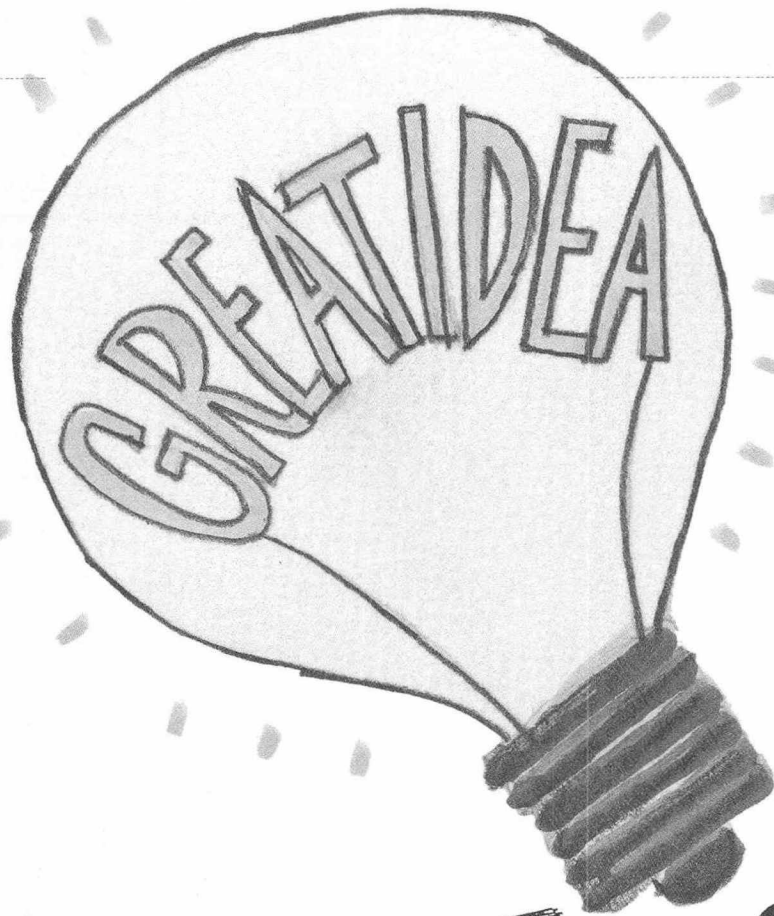


벤처 신화의  
비하인드 스토리

글\_ 김홍국(뷰스앤뉴스 경제부장)



## <유튜브>

# 세상을 읽는 눈, 세계를 뒤집는 아이디어



지난 8월 한 아시아계 젊은이의 놀라운 기타 연주 모습이 유튜브에 올라 화제가 되었다. 동영상의 주인공은 재미교포인 임정현씨로 이후 뉴욕 타임즈에서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해 우리나라에서도 큰 화제가 되었다. 일반인을 순식간에 유명인사로 만드는 유튜브는 실리콘밸리 젊은이들의 개인 동영상 공유를 위해 태어났지만 지금은 세계를 뒤집는 힘을 발휘하고 있다.

지난 11월 7일(현지시간) 실시된 미국 중간선거는 조지 W. 부시 행정부와 공화당의 참패로 민주당이 상원, 하원, 주지사 선거를 모두 석권하면서 화제를 모았다.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한 중간선거 결과 발표 직후 부시 대통령이 도널드 럼스펠드 국방장관을 즉각 경질키로 하는 등 대 이라크 정책이나 북한 관련 정책 등에서 과거 네오콘을 중심으로 한 강경파들이 퇴조하고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분위기로 바뀌면서 국제정치계의 지형이 바뀔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국제정치계가 큰 변화를 맞는 중간선거 와중에 가장 화제를 모은 것은 바로 온라인 동영상 제공 사이트로서 대표적인 이용자 제작 콘텐츠(UCC) 사이트로 불리는 유튜브였다.

## 유튜브의 놀라운 영향력

2004년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부시 대통령과 맞대결을 펼쳤던 존 케리 상원의원의 발언 논란을 선거의 핵심주제로 부각시킨 것이 바로 유튜브다. 2008년 대선 재도전을 노리는 케리 의원은 지난 10월 30일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 지원 유세 중 이 지역의 파사데나 시티 칼리지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설에서 “공부 열심히 해라. 숙제도 잘하고 똑똑해지려 노력하라. 그렇지 않으면 이라크에 가서 고생해야 한다.”고 말해, 공화당 진영의 대공세를 초래하는 등 파문을 일으켰다. 케리 의원의 발언은 즉각 지역 신문에 실리는 동시에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유튜브에 올라왔다. 보수파들의 블로그인 <뉴스버스터스(Newsbusters.org)>에도 대서특필되면서 공화당에서 잇따라 비난성명을 내는 등 선거쟁점으로 부상했다. 결국 케리 의원은 예정됐던 민주당 후보 지원 유세를 모두 중단하는 한편, 사과 기자회견을 하는 등 유튜브의 위력을 입증했다.

이 같은 막강한 힘은 정치에만 그치지 않는다. 미국의 팝스타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남편 케빈 페더라인이 한 음악 케이블방송에 출연해서 대형 다이아몬드반지까지 보여가며 팔불출처럼 부인과 아들 자랑을 늘어놓은 뒤 식당에서 이혼을 통보하는 문자메시지를 받았고 절망하는 그의 표정을 담은 동영상은 조회 수 1백 50만건을 넘어서며 화제를 모았다. 또 부시 대통령과 도널드 럼스펠드 미국 국방장관을 풍자한 동영상이나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슈퍼마리오로 빗댄 슈퍼김도 10만건이 넘는 조회 수를 기록하며 인기몰이를 하는 등 세계인들의 화제를 모으고 있다.

또 유튜브는 한 필라델피아 투표소에서 발생한 투표감시인 위협 사건을 가장 먼저 보도

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시민단체 투표감시인의 촬영을 막고 쫓아내는 투표소 관계자의 모습이 카메라에 잡히면서 적법한 투표감시 행위를 막는다는 비난이 빗발치는 등 유튜브의 위력은 미묘한 정치, 경제, 사회 분야의 현안이 나올 때마다 더욱 커지고 있다.

## 정보문화의 또 다른 혁명

특히 이번 중간선거 기간 중 유튜브는 미 시사주간지 <타임>이 선정하는 ‘올해 최고의 발명(Invention of the Year for 2006)’에 뽑히면서 특히 세계인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타임> 최신호는 “1갤론의 가솔린으로 5,000km를 달리는 자동차, 마법의 지팡이로 즐기는 비디오게임 ‘Wii’ 등 흥미로운 발명이 많았지만 유튜브만큼 세상을 바꾼 발명은 없었다”며 “유튜브와 같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함께 즐기고, 감동하며 공감하는 뛰어난 교육적 효과가 있는 방법은 없었으며, 유튜브는 이를 전대미문의 규모로 실현하며 세계인들에게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이 잡지는 특히 유튜브를 설립한 것은 실리 콘밸리의 젊은이들이지만, 실제로는 설립자 자신들도 유튜브를 처음 만들었을 때 이 서비스가 갖는 의미나 가능성을 이해하고 있지 못했던 점을 고려할 때 진실로 혁신적인 것은 이용자들이라며, 이용자에 의한 정보문화 혁명을 높게 평가했다.

이용자들은 술에 취해 비틀거리거나 스노보드를 타다 미끄러지는 우스꽝스러운 비디오를 찍어 올리는 등 다양한 동영상을 공유하며 급속도로 퍼져나갔고, 2005년 2월 정식 설립된 뒤 불과 1년 9개월 만에 세계의 문화를 바꿀 정도의 기적과 같은 혁명을 이 끌어냈다고 이 잡지는 평가했다. 유튜브는 현재 1억개의 동영상과 사용자들을 보유하고 있

고 하루에도 새로운 동영상 7만개씩 업로드되고 있으며, 하루 동영상 열람수는 1억 번에 달한다고 밝혔다.

유튜브는 지난 10월 세계 최대의 검색엔진 업체인 구글에 16억 5천만달러에 인수돼 화제를 모았고, 네티즌 사이에 끊임없이 화제를 불러일으키며 인터넷 세상에서 벤처기업의 무한한 가능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 세상을 보는 직관과 도전정신의 필요성

벤처기업은 시대의 변화와 소비자들의 욕구를 적절하게 읽고 이를 새로운 기술과 상품 개발에 적용시켜야 한다. 유튜브는 정보기술(IT)시대에 자신들의 눈으로 세상을 읽고 그런 이미지를 인터넷 세상에서 공유하고자 하는 아이디어가 대박으로 나타나 세상의 변화를 선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치열한 생존경쟁이 펼쳐지는 기업전쟁에서 이치럼 어지러운 시대의 변화와 세태를 읽으려는 최고경영자의 전략과 직관력 및 도전정신이 필수적임은 물론이다.

손자는 손자병법 병세편(兵勢篇)에서 “소리는 5가지에 불과하지만 다섯 소리의 변화 모두를 다 들을 수가 없고, 색채는 5가지에 불과하지만 다섯 색채의 변화 모두를 다 볼 수가 없으며, 맛은 5가지에 불과하지만 다섯 가지 맛의 변화 모두를 다 맛볼 수가 없다(聲不過五, 五聲之變, 不可勝聽也. 色不過五, 五色之變, 不可勝觀也. 味不過五, 五味之變, 不可勝嘗也)”라며, 전쟁의 형세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무궁무진하다는 점에서 기세와 순발력을 강조했다.

미국기업 못지않은 좋은 IT기업을 일군 한국에서도 창의력 넘치고 도전정신과 기운이 뜨거운 벤처기업들이 많이 나오기를 기대한다.